

Vol.107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보기 원합니다.



W W W . O M . O R G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오엠 발행일 | 2020.04.16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3 현대빌딩 5층

발행인 | 조은태 편집인 | 한승목 디자인 | 이혜민
전화 | 031-698-2372 팩스 | 070-4450-7745



**"We want to see vibrant community
of Jesus followers in the place where God calls us."**





- 03 한국오엠 후원안내
- 04 한국오엠 이사장 칼럼
- 06 한국오엠 대표 칼럼
- 08 국제오엠 업데이트
- 10 한국오엠 방향성

- 12 **선교지 스토리** _ America(OM KAM)
_ MENA(이집트)
_ WACA(T국)

- 18 특별 _ 코리안 코알라 가족이야기

- 20 **후원자 스토리** _ 오준형 변호사
_ 송종원 교수

- 22 **간사 스토리** _ 본부 강정명
_ 본부 최혜진

- 24 **지부 스토리** _ 서울경인지부
_ 부산울산경남지부

- 28 특별 _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

- 30 국내외 일정

- 31 이사목록

한국오엠의 정기적인 소식 및 매거진을 받고 싶으신가요?

한국오엠의 사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엠 서포터즈(S-OMer)가 되어주십시오!!

오엠 서포터즈(S-OMer)
알아보기

오엠 서포터즈(S-OMer)로 한국오엠과 함께 하는 방법!!



중보 기도 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행사에 참여함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 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기본 후원금 월 1만원 이상

가입혜택 한국오엠 매거진 정기 제공

한국오엠 소식 정기 수신

한국오엠 행사 참여(서포터즈 모임 행사, 선교 훈련 등등)

가입방법 ① 스마트폰을 열어주세요.

② 네이버에 스마트 검색창에 QR코드를 인식해주세요.

③ 서포터즈 후원 양식이 나오면 빈칸을 채워주세요.

<오엠서포터즈 QR코드>



한국오엠과 함께 하는 방법, 재정후원 번외편!

한국오엠 선교사 자녀 장학금

한국오엠 다민족교회개척

한국오엠 선교사 마스크지원

오엠 긴급모금 코로나 -19

오엠 재난모금_지진

<오엠재정후원 QR코드>





OM, 창조적인 소수의 담대한 도전

글 | 오정현 목사(한국오엠 이사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난제들, 해결해야 할 숙제를 두 손 가득 받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감염으로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전 인류’가 같이 숨쉬고 생존하는 ‘운명공동체’에 승선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들은 빗장을 지르고 ‘자민족 중심의 지형’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국가 간, 민족 간 갈등이 만연하고 세계 선교의 통로가 막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꾸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태를 거슬러 ‘인류 공통의 문제’로 여기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복음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생명의 기운이 펄펄 살아 넘치는 베스트 데이터로 구축하여 한국선교를 새 흐름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OM선교회는 세상에 피 묻은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허브, 요충지로 쓰였습니다. 전 세계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하고 선교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돌로스’, ‘로고스호프’ 선박으로 전 세계, 방방곡곡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창조적인 영적 인프라 역할을 훌륭히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서구 중심의 선교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아시아와 제3세계 교회가 주도하게 했습니다. 국제 본부를 싱가포르 이전하여 ‘아시아인의 리더십’을 키우는 창조적이고 담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에 선 한국OM은 강력한 도전 정신으로 창조적 소수, 영적 정규군으로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나라는 선택된 소수의 믿음 행진이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선택된 단 ‘한 사람’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거룩한 비대칭적 전략으로 주님 나라의 주권과 위엄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적인 소수의 담대한 도전’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환영 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을 극대화해서 재생산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터선교사로 온전한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입니다. 한국OM선교회가 이 시대를 복음으로 기필코 극복하고, ‘창조적인 소수’가 불일 듯 일어나 온 나라와 민족을 품는 ‘은혜의 저수지’요, ‘사역의 병참기지’로 주님께 영광스럽게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한국OM 대표로 섬겨주신 최현미 선교사님의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은태 선교사님의 신임대표 취임을 축하드리며, 맡겨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 중보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따뜻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오정현 목사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눅5:37-38)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정죄함이 아니요,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교의 낡은 틀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회당 건물 중심이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기 때 문입니다.

17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계속해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단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WORSHIP, WALK, WORK”입니다. 참된 예배가 최우선이요, 둘째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요, 셋째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사가 선교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선교가 우선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시들해진 이유는 선교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교회사에서 한 지역에, 한 나라에 부흥이 일

어나기 전에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연기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교회당에서 드리던 예배도 온라인이나 새로운 형태의 예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법정도 화상으로 재판을 열고, 새로운 방식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편안하게 여겨 왔던 모든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전 세계적으로 거룩한 경고와 함께 익숙했던 일상의 삶 속에 타성에 젖고 제도화된 잃어버렸던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교단체가 처음 세워질 때는 MOVEMENT로 시작합니다. 오엠도 처음 영적 MOVEMENT 로 시작했지 어떤 단체를 만들겠다고 작정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어떤 단체든 처음에 가졌던 스피릿이나 무브먼트는 점점 사라지고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되어집니다. 전통이 생기고, 매뉴얼 책이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교회도 오래 다니다 보면 타성에 젖고, 또 제도화 된



새 술은 새 부대에

글 | 조은태 선교사(한국오엠 대표)

니다. 형식은 남아 있는데 참된 내용은 사라집니다.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은 주님은 사라지고 종교의 틀 속에 모든 것이 제도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새 포도주가 낱아지고 있는 내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 합니다.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회개’는 바로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미신을 섬기는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생각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회개인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는 곳에 진정한 회개와 함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공동체가 회복되고 모든 관계 속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부흥은 선교적 부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낡은 제도화된 유대교에 참 생명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목적은 사람 중심의 제도화된 종교를 무너뜨리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국 오엠에 “영적 환골탈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에 껌데기만 남아 있고 영적 능력을 상실한 교회들을 향해 생기를 불어넣기 원하십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관계 속에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편견에 사로 잡혀있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보기 원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가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동일 하신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한국교회, 한국 오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새 부대가 준비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먼저 새 술로 변화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새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엠의 새로운 사명 선언문은 *“THE VIBRANT COMMUNITY OF JESUS FOLLOWERS AMONG THE LEAST REACHED”* 입니다.

한국오엠 대표 조은태 목사





“

지난해 N국에서 두 명의 형제가
미전도 마을로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렌스 총재는 이 사건을 비추어,
선함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속되는 **선하심**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



하나님은 모든 상황속에서도 **신실한 분** 이십니다.

글 | 로렌스 통(국제오엠 총재) 번역 | 김래은(한국오엠 간사)

첫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선하심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또한 볼 수 있거나 없음에 관계없이 그분은 선하십니다.

둘째. 그분의 선하심은 위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절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저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당신에게도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선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창조물에게도 선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의 풍요로운 선하심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선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접붙이셨는지 보십시오.

여섯째.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분은 선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하지 맙시다.

2020년 첫 오엠 국제 리더쉽 모임에서 메세지나눔 중...





Worship > Walk > Work >

한국오엠 국내사역자

대품 조운태

본부 강점명 고명준 박동음 이영숙 이혜민 이혜영 조정화 최혜진 한승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스티로73(정자동) 현대빌딩 T) 031.698.2372 / 기도회:매주 월요일 저녁7시
후원계좌 국민 440290-29-000046 OMK본부

후원원 강진희

후원계좌 국민 440290-29-000075 OMK후원원

서울경인지부 정국현 김리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81-5 예능교회 드림센터4층 T) 070.7097.5924 / 기도회:매주 월요일 저녁7시
후원계좌 국민 440290-29-000062 OMK서울

대전충청지부 이동진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50번길 56 (옥운동, 클로리아빌딩 4층) T) 042.274.9949 / 기도회:매주 월요일 저녁7시
후원계좌 국민 440290-29-000033 OMK대전

대구경북지부 류정숙

대구시 수성구 교학로47길 39(만촌동) 대구동신교회 내 오엠T) 053.743.7953 / 기도회:매주 월요일 저녁7시
후원계좌 국민 440290-29-000020 OMK대구

부산울산경남지부 이은수 배유경 이명희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01 중보빌딩 203호 T) 051.756.3295 / 기도회:매주 월요일 저녁7시
후원계좌 국민 440290-29-000059 OMK부산

광주전라지부

후원계좌 국민 440290-29-000017 OMK광주

제주

제주시 봉개동 606번지 제주 즐거운 교회T) 031.698.2372
기도회:매주 월요일 저녁7시30분

“ WE WANT TO SEE VIBRANT COMMUNITY OF JESUS

2020' New OM Korea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보기 원합니다.”

Time

Truth

Task

Mobilizing

Mission Training

Multi cultural Ministry

Missionary Support Services

Mission Network

FOLLOWERS IN THE PLACE WHERE GOD CALLS US. ”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글 | 김일권 선교사(AMERICA _ OM KAM)



암스테르담 왕궁 앞 담 광장에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스피커를 설치하고 무대 준비를 마쳤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원을 그리며 광장에 앉았다. 110만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 암스테르담. 전체 인구 1,700만 명인 나라에 1,8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작년 이곳을 방문했다. 종교개혁과 또 개혁신앙의 중심이었던 암스테르담은 세계에서 제일 큰 홍등가와 성 매매 및 마약 카페를 방문하고 보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는 전 세계 관광객들로 인해 날마다 인산인해를 이룬다.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위해 설립된 미주한인오엠(OM KOREAN AMERICAN MINISTRY)은 약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몇 년간 다음 세대 선교자원인 청소년을 위한 사역을 진행했다. 틴스인미션(TEENS IN MISSION)은 14세에서 18세까지의 중고등부 선교자원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유럽에서 진행하는 단기선교 프로그램이다. 한 주는 오엠에서 진행하는 틴스트릿(국제청소년수련회)에 참석해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모인 약 4,000명의 청소년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타문화를 배우며 익히는 시간을 가진다. 나머지 한 주는 네덜란드 오엠팀과 함께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무슬림, 지



역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선교사역을 진행한다. 나는 비록 2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 사역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며 다음 세대 선교자원으로 잘 준비되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드라마와 댄스가 담 광장에서 시작되었다. 한류가 대세인 것을 증명이나 하듯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아이들의 드라마와 찬양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기도 하며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현지 사역자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이 광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처음 본다고 말해주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재미교포 청소년에 대한 소문이 2018년 네덜란드 지역 신문과 방송사



를 통해 현지 교회들에게 알려졌다. 이 소식은 현지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네덜란드 교회의 침체된 청소년 사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 결과 우리와 함께 사역하던 현지 선교사님도 우리의 사역에 모티브를 얻어 네덜란드 청소년을 동원해 그리스에서 동일한 사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세계 약 750만의 해외한인동포와 6,000여 개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OM KAM 사역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상기시킨다.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으로 성장한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유럽교회의 재생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함께 함’이 축복이며, 선교입니다.

글 | 김갈렙 선교사(MENA _ 이집트)

“힘든 시기를 우리와 함께해 줘서 고맙습니다.”

자스민 혁명으로 인해 한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사람이 이렇게도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던 시기였습니다. 기대거나 의지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던 때였습니다. 그 힘든 시절이 지나고 혼란이 잦아들 즈음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우리와 함께해 줘서 고맙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의 현장에 선교의 대상과 함께하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으로 인해 감사의 인사를 받는 것이 어색하긴 했지만, 그 때 생각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고, 아파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점이자 전부구나’라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아는 만큼 마음껏 저희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전국 주일학교 교사대회 강의를 끝낸 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이었는데 저에게 대뜸 그들의 교회에서 자기들을 훈련시키며 함께 사역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가서 도우라’는 응답을 받고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와 토요일 주일학교 예배까지 꼬박 1년을 다녔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는 현지 교회에 매번 예배 때마다 30분 전에 도착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아는 만큼 마음껏 저희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1년 동안 아무 요구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예배자로 예배에 참석만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들이 저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1년 동안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에 3개월 동안 정말 풍성하고 실제적인 훈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통역을 돕기 위해 방문했던 한 고아원에서 지금까지 12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했던 사역이라 폭우가 쏟아져도, 사막 모래 폭풍이 몰아쳐도, 어떤 상

황 가운데 서든 아버지가 된 심정으로 꼬박꼬박 찾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들었던 기분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85명 여자아이들(4살~고3)의 아버지가 되기로 걱정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한 지 1년이 훌쩍 지나서 그곳 담당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는 그분이 그들의 기도 제목과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야 처음부터 가족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저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곳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는 인근 국가에서 온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지인의 소개로 수단 난민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대학 졸업 논문으로 주일학교 사역에 대해 연구한 분인데 어떻게 주일학교를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올해 1월 첫째

주부터 10~15명의 어린이와 4~5명의 교사와 함께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교사 훈련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수단교회 주일학교 사역...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수단 어린이들, 교사들과 함께함!!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역이기에 걱정이나 염려보다 행복한 기대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거친 땅에서 20년간 사역을 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아픔도 많았고 한숨 쉬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나에 대한 실망과 나의 역량에 대한 한탄도 많았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시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인간을 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맡겨진 일에 빛진 자의 마음으로 충성했을 뿐인데,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셨던 예수님처럼 이들과 함께하러 왔기에 함께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도 큰 기쁨과 만족을 주셨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나누기에는 이 시간과 이 지면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함께 함’이 축복이며,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함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 행복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삶이며, 선교적 삶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범람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또 다시 10년

글 | 조보금 선교사(WACA _ T국)

처음 10년 : 오매불망 꿈꿔 오던 쿠족 거점 도시 D시, T국에 정착하고도 1년 반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온갖 상상들로 부푼 가슴이 첫인상 한번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 저기 무너진 성벽들, 지저분하고 40도가 넘는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 음침하고 우울하기까지 한 사람들의 모습...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D도시의 첫인상은 한 마디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 보지도 않고 마음 깊이 품은 땅인데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게 뭐지...?’ 당혹스러움과 낙심한 마음에 기도하는 중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 구절은 차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내가 그 한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우여곡절 끝에 겨우 옮긴 D시에서 쿠족 사역이란 말은 정치적인 이유로 머릿속에서부터 지워야 하는 첫 번째 단어였습니다.

감정이나 상황을 떠나서 그 한 사람이라는 부담감으로 주어진 땅과 사람들을 섬기며 딱 10년만 견뎌 보자 결심하고 현지 교회를 섬기며 읽고 쓰기 가르치기, 어린이와 여성들 가르치고 양육하기, 중보기도와 축사 사역, 상담사역 등등으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와우’와 ‘휴’사이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수고했는데 ‘과연 무엇이 달라졌단 말인가?’, ‘혹시 무엇인가를 잘못 한 것은 아닌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든 것이 슬프고 화나고 억울하고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기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그때, 나 보다 더 오래

참고 기다리신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셨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새로운 기대감에 부풀어 또 다시 10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시 10년 : 변한 것 없는 여전히 바쁜 나날들이었지만 이미 나를 바꾸셨고 자유롭게 하셔서 그 땅에서 사는 10년이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시리아 내전과 IS사태로 국경을 넘어오는 긴 쿠족 난민 행렬.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에 가까운 D시의 지리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난민촌이 형성되었고 갑작스럽게 구제 사역이 시작되었습



니다. 세상에서 잊혀졌던 예지디족과 쿠족이 전 세계의 이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생각 못했던 쿠족 사역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 칸에 접어 두었던 제 오랜 비전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갑자기 제 눈 앞에, 제 품에 안겨온 쿠족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들을 먹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정보, 방법, 재정, 인력,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지쳐갔고 결국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의 팔은 고장이 났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도움밖에 줄 것이 없어 안타까워하던 터라 어쩔 수 없이 과감하게 구제사역을 내려놓기로 하였습니다. 준비 없이 허겁지겁 시작된 구제 사역이 끝나고 나서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꿈에 그리던 쿠족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제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 극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심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며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와 그 동안 현지 교회를 섬기며 드러나 있던 나의 정체, 국제 정세의 변화로 비자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은혜로 5시간 떨어진 M도시에서 몸만 옮겨 비자를 받게 되었고 M시, D시와 S시(쿠족 난민 교회가 있는 시리아 국경 도시)를 오가는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쌓이는 피로와 안전의 위협이 더해 갔지만 주님이 여신 문은 닫을 자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많지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사람들과 다양한 사역의 시도로 필요가 늘어 갑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배워갑니다.

첫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 _ 코리안 코알라 가족이야기

저는 호주에서 태어나 한국에 온 지 이제 겨우 2개월 된 어린이 코알라입니다.
코알라는 유칼립스를 먹으며 호주에서만 살 수 있는 동물인데 과연 제가 한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엄마와 아빠가 저에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했을 때는
저는 한국에 가기 싫다고, 호주에 남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한국어가 자신이 없어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렵고 학교공부도 힘들 것
이라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생각한대로 저와 엄마는 호주의 코알라처럼 행동이 느려서 빠른 한국사람을 따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져서 마스크가 꼭 필요한데
여기저기 마스크를 사귀갈 때마다 늘 매진이 되어서 우리는 아무리 뛰어도 마스크
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경쟁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차길을 건널때에도 아주 조심해야만 합니다.
호주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어서 차들이 사람을 천천히 기다려주지만,
한국에서는 길을 건널 때 오른쪽 왼쪽을 항상 잘 살펴서 재빠르게 건너야만 합
니다.
때로는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에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엄마도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생활이 쉽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차들이 너무 쌩쌩 달려서 운전도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며,
모바일 쇼핑이나 은행 일도 너무 복잡해서 마치 자신이 할머니가 된 듯한 느
낌이 든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도 못가고 집에만 있어야하는 날이 많을때면 호주
가 더 그림고 생각이 났습니다.

푸른 잔디와 넓은 공원에 큰 새들이 자유롭게 먹이를 쪼아먹고 있고,
파란 하늘 밑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피크닉을 나온 사람들이 햇볕을 쬔고 있는
모습들이 떠 올랐습니다.

그리던 3월 어느날 아침, 마가복음 2장 :21~22절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었
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에서 살면서 호주문화와 호주 생활 스타일을 그리워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을 그리워하고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나만 더 힘들어지고 행복
해 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생활하는 방식을 배워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호주에서 온 코알라이지만 유칼립스가 없을때 김치와 고추를 먹고 살아가는
한국 코알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나만의 새로운 문화로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만 선교사가 아니라 저도 선교사입니다.

'한국문화가 좋다, 호주문화가 좋다'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문화를
친구들에게 잘 전해주고 싶습니다.

Korean Koala 화이팅!

글 . 그림 | 조루비(한국오엠 선교사 자녀)



후원자스토리

저는 2004년 GA 20기로 OM 선교회에 허입 되어 1년간 국내외 훈련을 마친 뒤 네팔, 파키스탄, 태국에서 2년간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단기선교 기간 동안 80년대 생인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네 아버지 때나 겪었을 법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내전, 야간 통행금지령, 군사 검문, 벼룩에 물려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기도 했고, 성경책을 팔다가 개에게 물려 광견병 주사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에서는 권총 강도도 당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제가 다시 선교지에 올 때는 조금은 더 안정된 신분과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제 손이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단기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세상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로스쿨에 진학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OECD KOREA POLICY CENTRE”라는 국제기구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판사에게 OECD 회원국의 모범 관행과 제도를 전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활동을 하였던 권역이 포함됩니다.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된 당시 주일학교 제자들에게 밥을 한 그릇 얻어먹고 오기도 합니다. 게다가 권총 강도를 당했던 파키스탄을 다시 방문했을 때는 경호를 받으며 고위 관료들을 만나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세계선교를 향한 불씨가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다가 OM 서포터즈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울지부 장으로 섬기고 있던 동기 선교사님으로부터 “서울 지부 이사 좀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장갑을 끼고 사무실 집기류를 나르는 일인 줄 알고 그러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지부 이사회 멤버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 보다 낫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이 많은데 이제는 출장지에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지 확인하고 필요한 물건을 공수해 드리거나, 만나서 교제하고, 격려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선교사로 활동할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제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며 OM과 동역하겠습니다.

글 | 오준형 변호사(한국오엠 서울경인지부 이사)

다시 선교사를 꿈꾸며

글 | 송종원 교수(한국오엠 부산울산경남지부 이사)

나의 선교사역 1기는 알바니아에서 시작되었다. 명색이 국제공항인데도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전등불과 심사대의 깨어진 유리창... 아마도 지금은 우리나라의 어느 시골 버스 정류장보다 더 못할 것 같은 동유럽 알바니아. 그 곳의 티라나 국제공항에 내리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선교 1기 사역과 알바니아 사랑은 30년을 향해 가는 오늘날도 나의 이메일 아이디 속에 남아있다.

선교사역 2기는 선교사들의 심리적 건강과 안정을 위한 상담 공부로 시작되었다. 조금만 배우면 되겠지라고 하며 시작한 나의 “상담” 공부는 박사학위를 따고도 여전히 이어졌고,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선교사들을 위한 상담과 심리검사 사역 등, 상담선교사로서의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의 선교사역 3기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각종 선교단체의 이사로, 대학에서 교수로 상담전문가로 이어지고 있다. 매년, 선교사가 되려는 후배들을 만나며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함께 찾아가고 있고,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하거나 안식년을 맞아 본국을 찾는 시니어선교사들과 디브리핑(DEBRIEFING)을 통하여 선교 2기, 3기를 맞이하는 선교사를 돕고 있다.

지금도 선교사 헌신예배나 파송예배는 나에게 피를 끓게 만든다. 모든 것을 던지고 선교지로 나가고 싶은 열정이 나를 가끔 아프게 만든다. 매년 장,단기

선교사 훈련 강사로 참여하고 돌아오면, 심하게 몸을 앓곤 한다. 내 마음속에 식지 않는 선교사의 열정이 나를 버텨내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속의 열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나는 선교사를 꿈꾼다. 지금은 “보내는 선교사”로 만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나를 던질 준비와 함께 현장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사역에 맞출 준비와 함께 말이다.

알바니아는 여전히 나에게 꿈길 같은 고향이다. 어쩌면 또다시 가보기 힘든 길이기 때문이겠지만, 가끔씩 내가 살았던 알바니아의 베라트 가는 길은 내 고향 통영으로 가는 길보다 더 정겹게 느껴져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하지만, 선교는 꿈속보다 미래에 살아서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도 선교사를 꿈꾼다.



송종원 교수는(albania@korea.com) 상담심리학을 전공하여 부산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통영시 청소년상담실에서 상담 일을 시작하여 지금은 부산디지털대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고 있으며, 93년부터 95년까지 한국오엠 선교사로 알바니아에서 사역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엠을 비롯하여 고신 총회선교위원회, 한국해외선교회(GMF) 등에서 선교사들의 심리적인 건강을 위해 상담사역으로 선교사와 여러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다.

다시 새롭게 부르심의 그 자리로

글 | 강정명(한국오엠 간사)

저는 2000년도에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을 때 지인 선교사님의 소개로 오엠 서울지부의 재정 간사로 지원하면서 오엠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돌로스 선교선이 한국을 오게 되면서 그곳에서 스텝으로서 자원봉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하면서 그곳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이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002년 2년의 재정 간사로서 사역을 마감할 때쯤 다시 다음 진로를 위해 기도할 때 오엠 스텝수련회를 가게 되었고 그때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 선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새로운 믿음의 도전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싱글로 선교지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도

전이였기에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고 마침내 교회의 허락으로 전액 교회 후원을 받으며 돌로스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선교는 전적인 하나님께 속한 일인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년간의 배 생활은 저 자신의 연약함을 더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연약한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과 이런 주님의 포기치 않는 사랑으로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오엠 서울지부 인사부 사역을 끝으로 오엠 사역을 마치게 되었고 결혼과 함께 긴 육아를 하게 된 저에게 선교사역은 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남편이 교회 개척을 하게

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엠에서 본부 재정팀 간사로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오엠에서 사역하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20년 만에 하는 재정 일은 쉽지 않은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모두 새롭게 바뀐 재정시스템은 저에게는 너무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주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주시리라고 믿으며 날마다 기도하며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재정팀 자리가 단순한 재정업무가 아니라 이 자리가 바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오엠 재정팀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글 | 최혜진(한국오엠 간사)

안녕하세요.

올해 3월부터 한국오엠 인사부에서 다시 일하게 된 최혜진 간사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오엠과의 첫 만남은 제가 6기 유주현 선교사의 재정후원관리자를 맡게 되면서 재정보고서를 들고 그 당시 강남역에 있던 오엠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좀더 의미 있는 만남은 1998년 오엠의 여름 캠페인 중 하나인 러브 지중해를 통해서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스페인에서의 수련회와 3주간의 이집트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 기도 하는 것에 대한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중보기도에 도전을 받은 저는 캠페인을 다녀온 후 한국오엠 월요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한국오엠의 대표이셨던 김수용 선교사님의 제안으로 2000년 1월부터 인사부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둘째 출산 전까지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간사로 때로는 자원봉사자로 한국오엠과 함께하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함께하는 동역자들과의 소중한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오엠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나누어보면, 2000년 15기 선교사님들과 안성수양관에서 함께 훈련받은 일, 2001년 돌로스 선교선의 한국방문 때 선교선에서 80일 동안 지냈던 일, 2004년 오엠 국제리더모임(INTERNATIONAL LEADERS MEETING)을 준비하고 도왔

던 일이 있습니다.

둘째를 출산하고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국오엠을 많이 그리워했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 가족과 내 교회, 내 일이라는 우물 안에서 갇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직전 대표이셨던 최현미 선교사님께서 집 근처로 찾아오셔서 한국오엠 본부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다니...

먼저 두려움이 앞섰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움직였던 말씀은 한국오엠 본부에는 사무실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역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실에 출근한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다시 불러 주셨는지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시 선교사님들을 중보하는 자리로 나아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 한국오엠 본부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인수인계해 주시는 신은진 간사님처럼 일을 잘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한 걸음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부 스토리

하나님이 청소년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K...

글 | 정주현(한국오엠 서울경인지부장)

하나님이 청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난해 가을 따스한 오후, 최현미 대표님(2019년 까지 한국오엠 대표 역임)으로부터 한 통의 카톡을 받았다. 내용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진로 코칭 과목이 있는데 학생들 멘토링을 해야 하는데 바쁜 일정으로 인해 서울지부에서 대신 진행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대표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나는 고민에 빠졌다. 요즘 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고 단기 선교사로 지원하는 인원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몇 명이 올까? 얼마나 선교에 관심이 있을까?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고민에 빠진 내가 조금은 한심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고민 뒤에 청년들을 만나다라는 기대감이 나를 찾아왔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 만날 청년들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진로 코칭 과목은 시작되었고, 각 학과의 팀 리더로부터 연락이 왔다. 기독교 교육학과 7명, 신학과 5명, 총 12명의 청년이 선교의 꿈을 품고 모였다고 한다. 이렇게 12명의 청년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왔다.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나는 신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12명의 청년들은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선교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했다.

그들과 총 세 번의 만남을 가졌다. 오엠이 어떻게 선교를 시작하였고 어떠한 방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의 영역을 넓혀갔는지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한승목 홍보팀장의 수고로 세계 종교현황 강의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종교의 확산 과정과 세계 종교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선교를 펼쳐가야 하는지 함께 듣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으로 향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 한국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어떠한 희생이 있었는지 함께 봄으로써 예수님께 빛지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신 선교사님들에게 빛진 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 시간을 가졌다.

진로 코칭 과목을 하면서 느낀 것은 청년들이 선교에 관심은 있지만 그들의 삶이 너무나 바쁨을 보았다. 그 가운데 선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나눌 곳

이 적음을 볼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선교단체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단순히 그들을 우리 단체로 데려와서 함께 훈련하고 고민할 것인가? 그러면 지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하여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들의 귀한 연합으로 인하여 이 땅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아와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한다. 또한 이런 기회를 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학교로서의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길 기도한다.



“해외선교팀 모임을 통해서 ‘선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선교에 대한 유익한 조언들과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옛말에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우리의 대상은 적이 아니지만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만남은 나에게 있어서 선교를 준비하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이유림)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오엠’이라는 선교단체를 알게 된 것과, 정주현 선교사님이라는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엠 선교단체 역사와 하는 일들을 배우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선교의 영역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화진에 방문하여 한국에 오셔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을 보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장신대 신학과 황영길)

그 길

지부 스토리

글 | 이은수(한국오엠 부산울산경남지부장)



♣ 오엠과의 만남

이명희 : 2001년 여름, 둘로스 선교선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경남 진해항에 배가 입항해 있을 당시 자원봉사자로 지원해 2주의 시간을 섬겼습니다. 2주의 시간이 정말 너무도 순식간에 꿈을 꾸듯 지나갔고 그해 한국 오엠의 하반기 단기 선교사 모집에 지원하여 2년간 둘로스 선교선 사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수 : 저는 스물이 막 넘었을 때 처음 ‘선교한국’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와 선교박람회를 둘러보면서 선교사님과 만나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선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저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이제 드디어 선교지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단체를 찾던 중 OM 부산지부 사무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단체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너무 문턱이 높았지만, OM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턱이 높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가 2002년이었습니다. OM과의 첫 인연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 하나님의 시간과 예비하심

이명희 : 매주 월요일 저녁 지부사무실에서는 월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 남편도 당시에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식사 도중 앞으로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등 제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기에 가만히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제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과 많은 부분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희의 만남과 시간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희의 관계를 확실하게 도장찍어 주셨습니다(마19:6).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결혼도 그러했습니다.



♣ 지부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는 여정

이은수 : 재작년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다음 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음에 어디에 있게 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마음에 이스라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필드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할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공고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때 마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도 될까요?”

해가 바뀌어 2019년 1월이 가고 2월이 되어도 제 마음엔 여전히 이스라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스라엘 비전트립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2019년 10월 드디어 저희 가정은 처음으로 OM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기 전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과 그 땅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방문 전도를 하면서 만난 할머니, 메시아닉 주 교회에서 드린 예배 그리고 예루살렘 다마스커스 게이트 옆에서 만난 유대인 걸인을 통해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에 갈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적에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던 나의 경험을 통해 저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그 길’을 갑니다. 이 선택을 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필드를 바꾸면서 다시 저희 가정은 하나님과의 모험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험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OM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서로를 섬기며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분은 굴리야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2006년 OM의 선교선인 돌로스 선교선에 탑승한 최초의 카자흐스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돌로스 사역을 하면서, 선교가 단순히 설교, 가르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접시를 닦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동료 선교사들을 섬기는 것 또한 사역의 중요한 부분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많은 항구를 방문하고, 세계 여러나라의 다양한 민족과의 만남을 통해 그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굴리야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카자흐스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

라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2010년 그녀는 카자흐스탄 장기선교사로 자국민을 향한 선교 동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년 여름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열리는 실크로드 챌린지 라는 프로그램의 공동주최자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인들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파송되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굴리야는 “카자흐스탄의 교회들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아야 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카자흐스탄에 온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차례”라고 말

했습니다.

굴리야는 6남매 중 외동딸로 성장했고 부모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녀의 모든 형제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굴리야의 어머니는 카자흐스탄 교회의 기둥으로 종종 불리워집니다.

2019년 5월, 굴리야는 등에서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점차 신장까지 통증이 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검사와 진단을 통해 종양이 그녀의 요관을 막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검사결과 위암 4기로 판정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열악한 의료시설로 인해 치료가 어려워, 굴리야는 한국인 장기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사람들이 굴리야 선교사를 위

특별 _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

글 | ANDY HARRIS (CAN) 번역 | 이혜민, 김래은(한국오엠 간사)

해 기도하며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계 곳곳에서 아낌없이 지원되는 기도와 후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지난 해 6월 20일 굴리야는 시누이와 함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한국 오엠 리더가 그녀를 공항에서 맞이하고 치료받는 병원까지 안내했습니다. 굴리야가 처음 한국에 머물기로 예정했던 한달의 시간 동안, 한국 오엠은 중보기도와 재정 후원을 통해 그녀를 돌보며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아울러 굴리야가 병원에 입원했던 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문병하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굴리야의 암 투병은 현재 진행중이며, 정기적인 한국 방문으로 지금까지 8번의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한국 오엠선교회의

섬김과 도움, 보살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한국 오엠은 굴리야가 3번의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손길로 그녀를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치료과정이 비록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고 항암치료의 부작용과 암 투병으로 인해 그녀는 쉽지 않은 시간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태도는 항상 긍정적이며 희망적입니다. “하나님은 암보다 더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믿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저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굴리야를 축복하고 계시며, 그녀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굴리야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모든 한국의 형제 자매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된 가족인 여러분을 통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투병중에도 그녀 마음 중심에는 복음이 없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력있는 공동체를 보기원하는 오엠 사명 선언문이 그녀의 선교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한국오엠도 굴리야가 품었던 그 선교의 열정을 기초로 생명력있는 예수의 공동체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한국오엠 2020년 주요 일정

시간지표: 약 1847년로 세세 후 5개월 이상 된 자



단기 1,2년 선교사모집

상반기 지원마감: 5월 14일(목)
하반기 지원마감: 10월 10일(토)



지역지: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선교선(로고스 호프) 등



오엠 국제 리더십 미팅 OM GLT(Global Leadership Team) & OM ALG(Africa Leadership Group)
: 9월 6일(일)~13일(일)

오엠 동아시아 리더십 수련회 OM ELG(East Leaders Group)
: 10월 18일(일)~23일(금)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2020년 10월 28일(수) ~ 30일(금)



한국오엠 이사회

중앙이사회

명예이사장 김창근(무학 원로)
명예이사 박성수(E-LAND) 이동원(지구촌 원로) 정필도(수영로 원로) 최성규(인천순복음 원로)
이사장 오정현(사랑의)
부이사장 조건희(예능) 홍문수(신반포)
실행이사 오정호(새로남)
이사 고성삼(사랑의) 김정진(복성) 김판석(광주경신) 박광석(일산반월) 박은조(은혜샘물 원로) 박정곤(고현) 박종식(새중앙 원로)
 송태근(삼일) 이환용(평강한의원) 정재철(아시안미션)
감사 양수모
자문위원 김성운 이정순

훈련원

명예이사장 이동원(지구촌 원로)
이사장 홍문수(신반포)
이사 권구현(선린감리) 김영복(성실) 김태일(계산) 송관용(새중앙) 양치호(인천성광) 이권희(신일) 이상화(서현) 이선복(송의감리)
 이현국(온화) 이현종(ICG) 임병재(엘드림) 차형익(청주행복한)
협력후원 김성겸(동산) 김형준(동안) 채미자(형제침례)

서울경인지부

이사장 조건희(예능)
이사 공석원(평화성결) 권오규(계산제일) 김낙춘(빛소금) 김연수(열방참빛) 김은호(안양대학) 박춘태(행복을전하는)
 안도엽(경기중앙침례) 오준형(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이덕만(행신임마누엘) 이상갑(산본장로) 이영한(성일) 이원영(신공항영락)
 이화영(금호) 정해우(신앙) 조민음(바른미디어) 황성준(성인)

대전충청지부

이사장 오정호(새로남)
부이사장 김등모(대전영락) 이영환(한밭제일 원로)
실행이사 홍성현(판암장로)
이사 김중성(용산) 김철민(대전제일) 김 혁(선창) 심상호(성지) 원 철(예원) 이기혁(새중앙) 정승룡(늘사랑)
 정영호(새하늘시민)

대구경북지부

명예이사장 김창렴(동신 원로) 윤희주(대신대학)
이사장 김정진(복성)
운영이사 권성수(동신) 박민영(범어) 박창식(달서) 장영일(범어) 정태성(대일) 조병우(김천제일) 최상희(최상희치과)
감사 이병철(동신)

부산울산경남지부

고문 정판술(사직동 원로) 안용운(온천 원로)
상임이사 정필도(수영로 원로)
이사장 박정곤(고현)
부이사장 김두식(말씀) 변도우(동삼)
실행이사 송중원(온천) 신인범(제2영도)
이사 강동명(김해중앙) 김철봉(사직동) 김희중(유호) 백경현(광안생명) 손동후(동삼) 송영의(진주) 윤종균(경화 은퇴) 이성수(가덕)
 이외권(은혜로) 인태웅(부곡중앙) 장윤권(동삼) 전부경(진주동부) 정성훈(동래중앙) 조국현(새샘) 조 운(대영) 조정희(신부산)

광주전라지부

명예이사장 김유수(월광 원로)
이사장 김판석(광주경신)
이사 강성찬(전주동부 원로) 고상석(중앙장로) 객군용(양동제일) 권대현(광주제일) 권성만(군산성결 원로) 김부영(목포영락)
 김성천(여수제일) 김승연(전주서문) 김요한(월광) 노치준(양림) 마정선(광주양림) 모상현(목포주안) 박병란(광주기독병원)
 백주석(포도원) 서정수(전주동은) 송귀옥(목포영락) 송인동(광주양림) 송재식(서림) 신동민(군산) 오주환(예안) 유성은(광주새순)
 이기수(은혜의복음) 이의복(남원서남) 이재환(광주성지) 임동현(광주침단) 임부성(송월) 전희문(광주우리중앙) 조 경용(빛과소금)
 채규현(광주중앙)